

[사회]

영산강 수질개선 국비지원 수개월째 '감감'

환경부 약속 왜 안지키나

광주시 예산 태부족...사업시행 초기부터 차질

환경부가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지원을 늘려주기로 약속하고도 수개월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목표

원 중 4천164억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연간 1천억원에 불과한 가용 사업예산은 모두 영산강 수질개선에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꾸준히 건의 해왔다. 환경부도 지난 1월 이재용 당시 환경부장관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오염총량제 승인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목표 수질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현가능하도록 (오염총량제) 수정하겠다"고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4대강 물관리 계획에 따른 정부의 계획 대비 투자액은 한강 127%, 낙동강 80%, 금강 62%인 반면 영산강은 49%로 최하위다. 낙동강(대구), 금강(대전)의 경우 상수원으로 사용한

▲영산강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002년 제정된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나주 등 영산강수계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규모를 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하는 제도. 목표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다는 이유로 지자체 부담 수질개선 비용의 40%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영산강(광주)의 경우 농업용수여서 수계기금을 전혀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작문·미술 경연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 51회 호남예술제' 작문·미술 부문 본선 대회가 3천500여명의 초·중·고생이 참여한 가운데 15일 광주 우치동물원

에서 열렸다. 본선 경연은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다.

위정환기자 jrwi@kwangju.co.kr

서울대 2008입시 논술 예시문항 발표

서울대는 15일 현재 고2 학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통합 교과형 논술고사 2차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http://admission.snu.ac.kr)

투자의 효율에 대한 수험생의 가치관을 질문했다. '몽유도원도' 등 산수화를 제시하고 예술 창작과 감상의 기본 원리를 묻는 독특한 문항도 나왔다. 김승욱의 '무진기행'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 화자의 고뇌하는 상

황을 비교하라는 문항도 등장했다. 자연계열 1번 문항은 포물선과 쌍곡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천문관측용 망원경에서 포물선과 쌍곡선의 성질이 응용되는 원리를 물었다. 코끼리와 인간, 쥐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듣는 원리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도 눈길을 끌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프랑스전 앞둔 직장인 풍속도

광주 신세계 19일 정기휴일로 썸질방·동료집서 합숙응원 계획

오는 19일 프랑스전은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놓칠 수 없는 '빅 게임'. 이날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어서 '출근'과 '경기 시청' 사이에서 기업체와 직장인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4년 만에 만끽하는 태극전사의 승리를 잡고 바랄 수 있다는 생각에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휴무형=신세계백화점은 19일 일요일 정기휴일로 정했다. 백화점의 경우 매일 한 차례 정기휴일을 정하는 데 백화점 측은 프랑스전이 열리는 날을 정기휴일로 택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경기도 과천 관문경기장에서 본점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7개 백화점 별 직원 대항 축구경기를 벌인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직원 200여명도 이날 새벽 6대의 전세 버스에 분승, 과천으로 올라가면서 버스 내에서 TV를 보며 '버스 응원전'을 펼친다.

▲조기 취침형=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한국전을 보겠다는 계획. 19일 전날(18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후 8시에 잠자리에 든 뒤, 경기 당일인 새벽 3시에 일어나 양복과 구두 등을 챙겨 길거

리 응원 등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썸질방형=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썸질방을 찾아 눈을 밝힌 뒤 새벽에 일어나 한국전 승리를 위한 '복음제'를 위해 사우나를 한 뒤 정신을 맑게 하고 태극전사에 합숙 응원을 보내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이 어울려 응원 기분을 만끽할 수 있고 누워서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합숙형=독신 직장인들의 아이디어. 독신끼리 모여 한 동료의 집을 합숙장소로 정해 함께 자고 일어나 응원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고모(32)씨는 "동료끼리 술도 한 잔할 수 있고, 경기가 끝나면 모두 사우나를 들른 뒤 출근할 수 있어 벌써 약속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활동형=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하겠다는 직장인들이다.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전남대 후문의 길거리 응원축제가 참여, 한국팀의 승리를 만끽하고 출근길에 나서는 유형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안티 월드컵' 퍼포먼스식 집회 열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맞붙는 19일 '안티월드컵' 집회가 열린다.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안티월드컵' 카페(http://cafe.daum.net/antiworldcup)는 18일 자정부터 19일 새벽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카페 운영자 'hani'씨는 "과열된 월드컵 분위기를 비판하기 위해 30명 가량이 참석하는 퍼포먼스식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원 190명인 이 카페는 지나친 민족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든 응원 분위기를 비판하며 지난달 중순 만들어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월드컵 시청 80대 숨져

2006 독일월드컵 한국과 토고의 경기가 펼쳐진 지난 13일 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태모(80)씨가 집에서 부

인과 경기를 시청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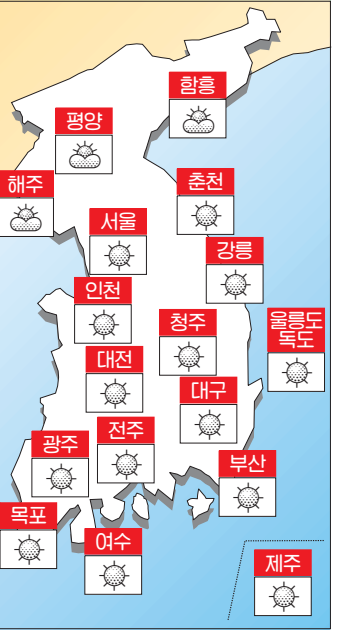
부인은 "TV를 보던 남편이 이천수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이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장마 앞두고 '반짝더위' 6월 16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6월 16일 (음 5월 21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울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5:36 썰물 < 10:52 여수 밀물 < 00:11 썰물 < 06:25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June 19th to 22nd.

"우리 학교는 안 쉬나요?"

'우리 학교는 휴업 안 하나?' 서울 광남중학교가 한국과 프랑스의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19일 휴업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광남중처럼 새벽 4시에 열리는 프랑스전을 등교 부담없이 시청하고 마음껏 응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토고전 때 결석·지각 사태를 겪었던 광주·전남 각급 학교도 학생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내심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아직 조별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업 결정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각급 학교의 휴업일 결정은 신학기 시작 이전에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학교운영위원회

서울 광남중 19일 휴업 광주·전남 학생들 '술렁'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학기 도중 휴업은 비상 재해·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남중은 지난 2월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프랑스전이 새벽에 열려 학생들이 밤새 TV를 시청하거나 응원을 하느라 학교에 나오더라도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미리 휴업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이 선전, 월드컵 4강 등에 또다시 진출한다면 '혹시나'하는 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학교장이 한국전 경기 때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면(교육법 시행령) 휴업이 가능한 까닭이다.

광주시 교육청 교무 관계자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에서 10%는 수업을 감축할 수 있지만, 각 학교는 이미 수업일수를 축소해 일정을 짜놓은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휴업이 어렵다"면서 "혹시 한국 팀이 4강에 올라간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High School Academy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a list of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yundai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highlighting job training and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Mudeung High School Academy (무등고시학원) for summer classes and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Heat Well electric heaters, comparing energy efficiency and cost savings.

Advertisement for Hyundai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with a detailed list of cours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Kyoungnam University (김영대학) for various degree programs and exam preparation.